KT&G 가세…궐련형 전자담배 '삼국지'

20일부터 시판…아이코스·글로와 치열한 경쟁 예고

담배시장 점유율 10% 곧 돌파…5000원대 인상될 듯

담배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빠르게 국내 담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담배업계 1위인 KT&G가 이달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세금 인상에 따른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업계의 본격적인 '눈치싸움'도 시작됐다.

6일 KT&G에 따르면 KT&G는 7일 서울 프렌스센터에서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 신모델 '릴'과 담배스틱 '핏'을 처음 공개한다. 릴의 공식적인 판매는 오는 20일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기존의 연초형태를 띤 담배스틱을 불로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열을 가열해 찌는 방식이다. 담배냄새가 배지 않는 등 장점 때문에 최근 젊은층의 흡연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6월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출시한 뒤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코리아도 '글로'를 선보이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 토종 담배업체 KT&G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3사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담배업계가 잇달아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며 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일반담배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아이코스의 서울 시장점유율이 5%대를 넘어서면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국 담배시장 점유율이 곧 10%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담배값 인상에 대한 3사의 눈치싸움도 더 치열해졌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등 세율이 모두 오르면 현행 1739원에서 1247원 증가한 2986원이 된다.

필립모리스 코리아 '아이코스'

BAT 코리아 '글로'

세율 증가에도 실제 담배 가격 인상 여부는 담배 업체가 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한국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도 가격 인상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1갑(20개)에 4300원인 전용담배의 가격이 6000원대로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았지만, 국내 1위 업계인 KT&G가 경쟁에 가세하면서 그보다 낮은 5000원대로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격인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 자체가 주춤할 수 있는 데다, 조정한 가격이 KT&G의 신제품보다 비쌀 경우 시장을 뺏길 수 있어서다. KT&G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릴과 핏의 가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소식에 일부에서는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는 아이코스의 전용담배 '히츠'와 글로의 '네오스틱'의 품목별 하루 발주 수량을 10~20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CU와 GS25도 추후 상황에 따라 발주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소식에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으로 실제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광주신보와 협약 총 78억원…기업당 최대 1억·금리 우대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6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광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6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72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출연은 올해초 '골목상권·전통시장 특례보증 금융지원 특별출연' 5억원에 이어 두번째다.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재단 또는 광주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다. 특별출연 보증은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한은 5년 이내다.

또한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요율은 기업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0.8~1.0%로 우대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0.3%포인트까지 특별 우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우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부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빚독촉 3일전 원리금·소멸시효 알려야

오늘부터 명세서 통지 의무…3000여개 금융사 적용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3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 업무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세부명세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도 추가로 반영했는데, 이는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 지켜지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검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49.41 (-8.56)	↑ 금리 (국고채 3년) 2.15% (+0.02)
↑ 코스닥 703.79 (+2.66)	↑ 환율 (USD) 1115.00원 (+1.20)

6일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세무공무원 초청 간담회 후 김동언 광주전남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체납세금 징수·재정 증대 정보 공유

캠코 광주전남본부, 세무공무원 초청 간담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동언)는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시, 전남도, 제주도 산하 일선 세무공무원 80여명을 초청해 체납세금의 원활한 징수와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캠코와 세무서, 지역 시·도간 체납징수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압류재산 공매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수입증대와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특히 캠코의 국공유재산 관리와 기업구조조정 지원 업무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공유재산 수탁관리의 장점을 설명하고, 세무서 공무원에게는 체납기업 방문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자산매입후 임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동언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다양한 공매정보 제공과 일반인들의 편리한 입찰 참여로 압류물건의 고가 매각을 통해 체납자에게는 더 많은 체납세액 납부, 지자체에게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무서 및 지자체 세무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조세행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벤츠, 수입차 판매 5개월째 1위

10월 4539대 팔려…신규 등록은 한달새 17% 줄어

메르세데스-벤츠가 지난 10월 수입차 시장에서 BMW를 100여대 차이로 제치고 5개월째 판매량 1위를 지켰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순위에서는 BMW 520d가 석 달 연속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혼다 어코드가 2위로 뛰어올랐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등록된 수입차는 총 1만6833대로 9월보다 16.8%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8.3% 줄어든 규모다.

수입차협회 관계자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수 감소로 인해 판매가 전월 대비 주춤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별 판매량은 벤츠가 4539대로 5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이어 BMW(4400대), 토요타(1110대), 랜드로버(940대), 혼다(930대), 렉서스(906대), 포드(756대), 미니(660대), 볼보(534대), 크라이슬러(513대) 등 순이었다.

10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9월과 마찬가지로 BMW 520d(842대)가 차지했다. 2위는 혼다 어코드 2.4(724대)였고 BMW 520d xDrive(640대)와 렉서스 ES300h(555대), BMW 530 xDrive(477)가 뒤를 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